

[나와 《길림신문》]

■
 성송권

내 청춘과 성장의 시간들을 함께한 《길림신문》



1992년 8월, 랑수항 통신원학습반에 같이 참가했던 김청수기자(가운데)와 기관 통신원들(오른쪽 첫번째 저자).

내가 처음 《길림신문》을 접했을 때는 1985년,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였다.

1977년 나는 당시 훈춘현 랑수공사 남대중학교 고졸을 졸업하고 농촌에서 농사일에 종사했다. 그때 세월에다 그러했듯이 농촌의 문화생활은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영화 한편을 보려 해도 15리나 되는 항소제지에 걸어가야 했고 집집마다 텔레비전도 보급되지 않았으며 조선문 잡지나 신문 같은 문화적 식량도 얼마 없었다.

어느 날 내가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술을 놓기 바쁘게 촌 민병무기고의 당직을 서려고 촌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항미원조 참전 2등 영예군인이며 촌에서 창고보관원 겸 출납으로 사임하셨던 집안 친척별 되는 매형이 신문 한장을 넘겨주는 것이었다. “새로 나온 신문인데 볼 만하오.” 반갑게 받아보니 《길림신문》이었다.

그날 저녁 함께 당직 서는 친구들이 트럼프놀이를 떠들썩했지만 나는 조용히 한켠에서 새로 나온 《길림신문》을 읽으면서 흠뻑 매료되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장장 40년 동안 《길림신문》을 열심히 구독해왔다.

2001년 도문시로 전근한 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길림신문》을 주문해 보았다. 퇴직하는 해 단위 명도들이 무슨 부탁이 있는가고 물어볼 때 단위에서 해마다 《길림신문》을 계속 주문해달라고 해서 웃긴 일도 있었다.

《길림신문》은 많은 소식들이 새로 왔고 산재지구의 소식들도 볼 수 있어 좋았으며 기사들이 우리와 너무 가까운 일들이어서 좋았다.

그때 촌에서 공청단서기로 일했던 나는 청년들을 동원하여 촌 식수 임무

를 도맡아 활동 경비를 벌어들이고 촌지도부의 지도와 방조로 청년도서실도 꾸려 여러가지 신문 잡지도 구전히 갖추었으며 문예선전대도 건립하여 청년생활을 풍부히 했다.

향과 현, 주의 모범 공청단서기로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고 공청단총지도 주선진단위로 표창받았다. 이런 성과는 《길림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을 열심히 구독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0년 내가 항정부에서 사임할 때도 나의 손에서는 《길림신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때 다각경영부분의 특산과를 책임졌는데 늘 신문에 실린 농업과학지식편을 가위로 여러 큰 목책에 붙여놓고 하향할 때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학습하고 농민들에게 전수했다.

1991년 내가 항당위 선전위원으로 사임하게 되면서부터 길림신문사의 여러 기자선생님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어느 날 기관의 문서가 사무실에 찾아와 당위 서기가 부른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 50여세 쯤 돼보이는, 지식분자 틀이 다분한 낯선 분이 쏘파에 앉아계셨다. “길림신문사 리금남 사장님이요. 인사하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신문사 분들과 면목을 익히게 되었고 그후로는 허동철 부총편집, 윤성환, 최경학, 김청수, 리원철 등 많은 기자분들과 밀접한 래왕을 하게 되었으며 그분들도 랑수를 자주 다녀갔다.

어느 해 허동철 부총편집이 취재를 왔다. 초대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그 촌의 당지부 서기가 성송권 선전위원도 글을 잘 쓰는데 왜 《길림신문》에는 투고를 안하는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번에 《연변일보》와 연변방

송에 나간 소식들이 반향이 좋더라고 나를 치하해주었다. 허동철 부총편집은 그런 일도 있었느냐며 그 자리에서 원고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 기회를 농칠새라 나도 “선생님께서 저의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하고 청을 들었다. 그때까지 랑수진에는 진가가 없었는데 이처럼 유명한 작사자를 앞에 모셔놓고 이대로 농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후부터 나는 부지런히 원고를 써서 《길림신문》에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1997년 3월 11일 1면 톱에 실린 〈랑수진 영화촌과 연결복합과자공장 ‘성향연합신용호조협회’ 설립〉 기사가 호평을 받았다. 당시 농민들은 쌀 팔기 어려웠고 곤난호들에서는 아이들의 학비와 당해의 대부금도 못갚아 안달아했다. 연결복합과자공장의 김영숙 리사장은 농민들의 이런 곤난을 헤아려 상호 돕는 원칙을 기초로 이 촌과 자매관계를 맺고 촌의 곤난호에 부림소와 새해 생산물자비를 지원했으며 촌에서는 5헥타르 논에 생태유기농 찰벼를 심고 4헥타르 밭에 팥을 심어 수확한 후 몽땅 복흥과자공장에 팔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다른 한편은 1995년 8월에 쓴 〈남대촌 농업협회 저마곰 장개〉라는 기사였다. 〈양돈협회 남대협회 과수협회 황원협회 여덟 신선 넝리리 바다 건느네〉란 제목으로 보낸 지 얼마 안 돼 인차 신문에 발표되면서 ‘편집자의 말’까지 함께 실렸다.

신문, 방송에 100여편의 기사를 썼으나 이렇게 ‘편집자의 말’까지 추가된 문장은 극히 적었다. 그해 나는 《길림신문》의 특약통신원으로, 그리고 신문사의 추천으로 동북 3성 조선말 방송신문 표창대회에까지 참가하

여 ‘우수통신원’으로 표창받았다.

길림신문사 기자분들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서로의 감정도 깊어졌다. 그리하여 리원철 부총편집을 모셔놓고 통신원 감습반도 여러차례 꾸렸고 허동철 부총편집이 작사하고 방룡철선생님이 작곡한 랑수진 진가도 만들었다. 해마다 랑수진 운동경기대회에서 몇백명의 녀성들이 색다른 고운 치마저고리를 받쳐입고 진가에 맞춰 춤추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향 기자들의 헌신적인 정신, 실사구시적인 사업작품은 아직도 정말 인상 깊다.

한번은 허동철 부총편집을 모시고 동산촌 탄광에 취재하러 갔는데 그냥 탄광에 내려가 보겠다면서 수직갱이 100여메터나 되는 위험한 막장에까지 내려가는 것이었다. 김청수기자가 도문시에 많이 다녀왔는데 늘 우리 항진기관 간부들과 함께 눈도 랑가서내는 의무로동에도 동참하고 빈곤호의 버가을도 같이하면서 특수화가 없었다. 더우기 내가 좋은 기사자료를 제공하면 당사자를 현지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면 꼭 나의 이름을 앞에 놓고 발표했다. 내가 쓴 원고도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어떤 원고는 전화까지 걸어와 자세히 대조하여 한편도 허실없이 해주시고 부족한 점도 편지나 전화로 일깨워주곤 했다. 나도 연결에서 축구경기가 있을 때면 표를 부탁하곤 했는데 리원철 부총편집이 점심도 사주면서 이미 퇴직한 허동철선생님과의 뜻깊은 상봉의 자리도 마련해주는 혜택도 누렸다. 나도 그 정을 못이겨 새해 신문 주문이 시작되면 적극 홍보에 나서곤 했다. 그때 우리는 함께 모여앉으면 《길림신문》을 그냥 ‘우리 신문’이라 친절하게 불렀다.

새해 신문 주문은 보통 11월부터 시작된다. 농민들이 쌀을 팔아야 손에 돈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늘 저녁 퇴근 시간에 우정국 국장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랑수진 산하의 13개 촌을 찾아다니면서 주문을 받았다. 그때는 여러 잡지사와 신문사들에서 내려오는 주문 임무가 많았다.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길림신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신문, 잡지들의 주문 임무를 철저히 완수하여 몇년간 시선전부와 시우정국의 우수발행원으로 표창받았다. 어느 해인가는 《길림신문》 주문량을 300부까지 끌어올린 적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감개무량하다. 《길림신문》과 함께한 나날이 바로 나의 청춘시절이었고 바로 나의 성장의 시간들이었다. 지난날 《길림신문》에 나의 저그마한 기여라도 있었다는 건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자랑이다. 장간 40주년을 맞은 《길림신문》이 거둔 휘황찬란한 성과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향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전망대]

연변팀, 섬서연합 꺾고 홈장 3연승 가자



제 7라운드 연변팀과 상해가정회통간 경기 한 장면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5월 11일 오후 3시, 연변룡정 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연길 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1승 2무 4패로 5점을 기록하고 13위를 달리고 있는 섬서연합월량박팀(이하 ‘섬서팀’)과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8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섬서팀은 2023년에 설립된 섬서연합축구구락부 축구팀으로 2023년 중국축구협회 챔피언스리그 3위로 을급리그에 승격하였고 지난 해에 을급리그 4위로 갑급리그에 보충 승격되었는데 중국 프로축구 사상 비교적 운이 좋은 축구팀이라 할 수 있다.

갑급리그에 올랐을 후 섬서팀은 서동동(수비수), 미호룬(문지기), 랑소룬(수비수), 왕박호(공격수), 진언박(미드필더), 왕세결(공격수) 등 14명의 국내 선수와 달바로, 라양, 라나 등 용병들을 영입하여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으나 배합 미숙을 오래 앞으면서 경기 내용이나 투지는 좋으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팀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5라운드 경기에서 1무 4패의 성적으로 부진을 겪고 있지만 기실 섬서팀은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지난 제 7라운드 료녕 철인과의 원정에서 쏫 18차, 푼문안 쏫 7차로 료녕철인을 몰아쳤다 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비록

1:2로 패했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은 투지 강했던 당년의 연변팀 같다는 느낌까지 주었다.

반면 연변팀은 축구협회컵 경기를 시작으로 홈장 연승 행보를 이어가면서 중위권으로 부상한 상태다. 지난 제 7라운드 경기에서 상해가정과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치르고도 아쉽게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포부스의 침투와 박세호, 김태연의 중원 장악이 좋았고 팀 전체의 박진적인 배합 패스가 눈부셨다고 할 수 있는 경기였다.

연변팀이 섬서팀과의 경기에서 13번 달바로의 득점을 차단하고 21번 왕세결과 16번 왕박호의 속도를 리용한 침투를 대인방어로 억제한다면 실점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기에 중원에서 박세호, 김태연, 천창결, 리룡 등이 18번 원군, 38번 호천명, 24번 진언박, 33번 담개위를 묶어두고 침투 패스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더욱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홈장에 돌아온 연변팀이 악바리정신으로 무장된 섬서팀을 충분히 연구하고 차분하게 대처한다면 홈장 3연승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 김태국기자

길림대학, 인공지능과정 개설

인공지능과정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 길림대학은 2025년 가을 학기에 2025학년 본과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서론》 과정을 정식으로 도입하여 2022년판(2024년 수정) 양성방안중의 《대학컴퓨터》 과정을 대체한다.

중국 인공지능 연구의 발원지중 하나로서 AI 분야에서의 길림대학의 개척자 지위는 왕상호원사의 선구적 기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세기 60~70년대에 중국 인공지능 선구자인 왕상호는 미래지향적, 학술적 시각으로 오토마타리론,

다치론리, 정리기계증명 등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길림대학에 완전한 ‘인공지능—컴퓨터과학—수학’ 교차학과 체계를 구축했다.

《인공지능서론》 과정은 지능시대 학생들의 기초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알고리즘 사고 훈련을 통해 구조화된 인지 기틀을 구축하고 료리 모듈을 활용하여 기술과 인문적 배려를 강화함과 동시에 학과간 사래를 통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민넷—조문판

科学饮食 · 规律作息

健康未来

— 文明健康有你有我 —